

저는 순간의 은총으로 하느님의 부르심에 맞갖도록 수도여정을 걷고 있는 최옥자 글라라 수녀입니다. 1990년도에 입회하고 1997년에 종신서원을 하여 용머리, 완도, 나바위, 청호동, 연동본당의 전교수녀로서 작지만 아름다운 곳에 위치한 본당에서 신자들의 큰 사랑 안에 하느님을 전하는 수도자로서 소소한 행복을 나누는 사도직에 임했습니다.



어릴 적 어려운 이웃의 힘이 되고 싶었던 작은 소망이 빈첸시오 성인을 통해 싹을 틔워내고 마음 안에 타오르는 열정을 현장 안에서 소외된 이들과 좀 더 가까이서 함께 살아가고자 사회복지 공부를 한 후, 인천남동장애인복지관에서 시작하여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인 마가렛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의

허전한 마음을 채워주는 마더씨튼의 딸로써 어머니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다양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1년 8개월째 노치원이라고도 부르는 치매어르신들의 주야간 보호이용시설인 갈현동성당데이케어센터에서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스무 분의 치매어르신들과 하루일과로 춤추고, 노래하며, 레크리에이션과 성경이야기, 가톨릭신자들은 매일미사에 참여하여 마음의 위안을 얻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느리지만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일 '뭐 먹니?'와 '너 누구니?'를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반복하며 자신만을 바라봐 주기를 바라시는 욕심꾸러기 어르신부터 유난히 춤추기를 좋아하시는 어르신들까지 때론 귀엽고 때론 힘겹기도 하며 인내와 자비를 가져야만 하는 어르신들이지만, 그 분들과 함께 매일의 웃음을 찾아 나누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린아이를 케어 하는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고, 노인을 케어 하는 것은 하느님께 우리가 드리는 선물이다"라는 마음으로 노년의 마지막시간에서 치매를 지니고 계신 어르신들과 선생님들은 함께 하늘에 보화를 쌓는 마음으로 지난날 자녀와, 이웃들에게 베풀었던 그 사랑을 이제 우리들이 대신 나누어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미소와 손길로 활짝 웃으시는 모습으로 행복하시기를 꿈꾸며... 오늘도 한번이라도 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삶에 감사하는 어르신들이 되시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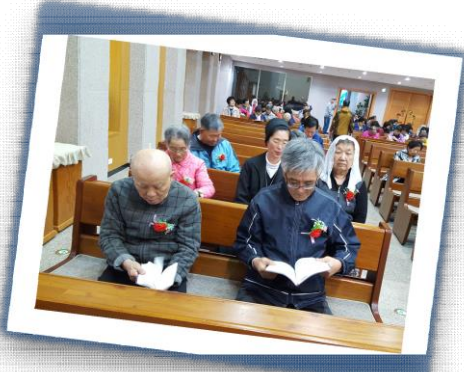


My name is Sister Choi Ock Ja. I have had a journey of religious life responding to the call of God with the grace of the moment. I entered the community in 1990 and having perpetual vows in 1997, I worked in parishes (Yongmeo-ri, Wan-do, Naba-wi, Cheongho-dong, and Yeon-dong), where I joyfully shared and received the love of God with the people.



When I was young, somewhere in my heart the desire to help the people in need began to resonate. And I began to study Social Welfare. Here I am working for the elderly with dementia at the day care center belonging to Kalhyeon-dong parish in Seoul diocese. Before coming here, I worked at Margaret Study House for poor children. Wherever I work for those who are in need, my heart is filled with the passion of St. Vincent and the motherly love of Mother Seton. I did my best to help and serve them.

One year and eight months has passed since I came to this day care center (which is called 'NoChi-Won'). The everyday schedule is comprised of dancing, singing, recreation, Bible storytelling, and Mass. It seems that they enjoy these programs and receive consolation. We have twenty elderly people at this point.



Even though there are some people who want special attention, and there are people asking for my patience and merciful heart to take care of them daily, I am giving my efforts to let them know the way to eternity in our daily lives. There is a saying; "To take care of the children is the gift given from God, to look after the elderly is the gift we present to God."

Those who are in the last stage of life are the people who sacrificed and shared their lives with their families, and the people working for them are accumulating the treasures in heaven, I think. I wish and pray that all of the elderly and the care givers are enjoying their lives and being grateful to God every day with a big smile.

